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생회복·도정혁신·농생명 TF 구성

도지사 인수위, 핵심공약
실행 위해 3개로 꾸리기로
이정현 대변인 “민선8기
전북도정 성공 정착 노력”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
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핵심 공약 실행
을 위한 3개의 TF팀을 구성했다고 밝
혔다

이정현 인수위 대변인은 13일 도의
회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전북도 핵
심 공약 실행과 관련한 ▲혁신경제민
생회복지원단 ▲도정혁신단 ▲농생명
산업지원단 3개 TF팀 구성에 대해 설
명했다

먼저 혁신경제민생회복지원단장은
성도경 비나텍 대표가 임명됐다.

또한, 간사는 이현용 경제통상진흥원
장이며, 위원에는 임동욱 이노비즈 회
장 유도형 전 여성경제인 협회장, 전
안군 전북소상공인회장, 정인수 전
KST 호남지원장, 김순원 전 전주상의
사무처장, 김남훈 전북대 교수, 최인규
전북도농복지센터 이사장, 최병희
KICT 창업멘토링 센터장이 맡게 됐다.

혁신경제민생회복지원단은 김관영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인 전북경제 살
리기와 민생회복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다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
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해결, 민생회
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걸고 노력하
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전북도민들께
서 밥 흘러 일하고 계신 현장의 목소
리를 듣고, 전북경제 살리기와 민생회
복 방안을 찾는데 집중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
해 인수위 단계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정혁신단장에는 두재균 전
전북대총장을 임명했다.

간사에는 김연근 전 전북도의원이,
위원에는 송화섭 전 중앙대 교수 김
길수 전북대 교수, 이봉기 원광대 교
수, 김경주 전주비전대 교수, 김동봉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이정현 대변인이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생경제 등 3대 TF팀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 경찰서장이 활동하게 된다.

김 당선인은 도정운영의 방향과 관
련해 “민생 우선의 도정을 펼칠 것이
며, 현장 우선의 도정에서 답을 찾을
것이다.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실용정
치,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로 도
정운영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꿔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농생명산업지원단장에는 라
승용 전 농촌진흥청장이 임명됐다.

간사는 김윤태 미래농업 전략연구원
장이 맡게 되며, 위원에는 최한국 전
북 4H 회장, 송미령 여성농업융합업
가, 이상철 농업인단체 대표, 김현곤
전 국회의원 보좌관, 장은아 전 부안
군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농생명산업지원단은 김 당선인의 핵
심 공약인 농생명산업 육성과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예정이

다. 김 당선인은 6차 산업 혁명을 선
도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공약하며,
“우리 전북은 앞으로 농생명산업의 세
계적 메카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강
조했다

김 당선인은 “전북은 그동안 우리나
라를 대표하는 곡창지대로서 농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혁신도시의 R&D 기반 등을 활용하고
육성해 전북을 세계적인 농생명산업
의 세계적 메카로 키우겠다”는 공약
을 내놓았다.

이정현 대변인은 “전북도지사직 인
수위원회 산하에 핵심 공약 실행을 위
한 3개의 TF팀 구성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농촌 사회서비스 제공 도, 전국단위센터 구축

농식품부 공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선정... 140억원 규모 예산 확보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에서 공모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
터에 선정됐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센터는 급속한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내몰린 농촌지역의 사
회서비스(볼볼·의료·보육·교육 등)
및 생활서비스(식당·마트·미용실
등)를 제공하는 특화 공동체 육성을
위한 전국 단위의 전문교육기관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시군 중간지원
조직 전국 최초 구축(14개 시군 완료),
사회적 농업 전국 최대 운영(18개소)
등 농촌 사회서비스 및 생활서비스 등
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전국 최우수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었다

총 사업비 140억원(국비 70, 지방비
70)으로 2022~2024년, 3년간 신축 되
는 이번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
모로 교육시설 및 창업센터, 연구실
등을 겸비한 복합교육센터로, 전북농
식품연계개발원(김제시 백구면 영
상리)에 신축될 계획이다.

센터는 전국 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교육, 인력양성, 인증, 컨설팅 등의 기

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전국 단위 네트
워크를 통해 전국 사회적 농장 및 서
비스 특화 공동체 간 정보교류 활성화
와 정기적 모임(포럼, 간담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센터 공모 선정에 계기로
농촌 사회서비스 및 생활서비스 분야
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지역소멸대응기금’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외도 연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삼석 국회의원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 이번 공모 선
정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센터의 향후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
안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와 생활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는 전문
기관이 없었다”며 “이번 공모 선정은
계기로 전국적으로 농촌 사회 및 생활
서비스가 제공될 기대한다.”고 밝혔
다. /김경수 기자

전북 뉴딜정책, 전국 ‘최우수’

행안부 평가서... 도, 종합계획 수립 등 기반 구축

우수사례 발굴·주민 맞춤형 홍보 등 우수성 인정받아

케냐프 기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 중점 관리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지역균형 뉴딜 우수 지자체 평가
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지자체 주
도적으로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
역균형 선도시책을 발굴해 전국적
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그간 ‘전북형
뉴딜 추진 위원회, 전북형 뉴딜 중

합 계획 수립 등 기반 구축, 전북형
뉴딜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성과
창출, 주민 맞춤형 홍보와 기관장
관심도 확산 및 국민체감 등 전 분
야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도는 확산 및 국민 체감 등 3대
분야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지역
균형 뉴딜 우수 지자체 선정위원회’
에서 평가한 7개 지표에서 최고 점
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추진해 나
간 지역 균형 뉴딜 최우수 지자체인

전북도는 7월 중 균형회계차등
지원평가에 반영하고,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케냐프 기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화 주
민 주도형 뉴딜 사업’ 등을 중점으
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그간 역
점적으로 추진해 온 전북형 뉴딜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
다”며 “지자체 선도시책으로 확산하
고, 해왔던 것과 선정된 것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으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체
감도 높은 정책도 발굴·추진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신비로운 생태계의 향연
정읍 솔티숲·월영습지

정읍시 JEONGEUP-SI | 한국관광공사 선정
2022년 여름철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

문의처 : 063)539-5703